

친환경패션에 나타난 디자인적 요소의 특성 -선행연구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하승연 · 박재옥[†]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Characteristics of Design Elements in Environment-Friendly Fashion -Focus on the Content Analysis of Previous Literature-

Seung Yeon Ha · Jae Ok Park[†]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접수일(2009년 4월 22일), 수정일(1차 : 2009년 5월 11일, 완료일 : 2009년 6월 1일), 게재확정일(2009년 6월 9일)

Abstract

In the current fashion design, the 'environmental friendliness' affects the practically and conceptuality in all industry and culture sectors. This study seeks to examine specific design elements as the content of design factors in environment oriented fashion. The subjects of this paper are studied through scholarly journals that are confined to those from 1990 (when naturalism and ecology trends started to be in fashion) to February 2009. This study used 'Naturalism', 'Green', 'Environment-friendly', 'Eco', 'Sustainable', 'Well-being' and 'Lohas' as key words for the literature search. The analysis is performed through a content analysis and the unit of analysis is based upon the adjectives, nouns, and phrases related to the content of the design elements such as line, color, and textiles. In the results, more expression is natural, minimal, transformable, and sportive style in line, YR, white, soft, pale, and dull tone in color. The prominent textiles and texture were natural fabrics, environment-friendly fabrics, recycled fabrics, natural dyeing, functional finishes, rustic surfaces, flexibility, and extensibility. The results of this paper will help in future fashion design product development for environment-friendly fashion brands.

Key words: Environment-friendly fashion, Natural-friendly, Functional, Sustainable, Multicultural;
친환경패션, 자연친화적, 기능적, 지속가능한, 다문화적

I. 서 론

Ljungberg(2007)는 과잉소비, 자원의 이용, 공해와 인구증가를 미래의 환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고, 재창조할 수 있는 재료의 선택과 에너지의 최소 사용으로 디자인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

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패션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김수현 외(2007)은 '패션산업에서의 화학 처리에 의한 폐수 및 대기오염 문제, 디자인의 짧은 수명주기로 인한 자원낭비 및 폐기물의 누적, 그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은 영국 케임브리지대가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티셔츠와 스웨터가 샌드위치보다 더 싸게 판매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은 쓰레기를 양산하는 환경의 적'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Corresponding author
E-mail: jaepark@hanyang.ac.kr

제는 패션산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친환경패션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전민정, 2007). 따라서 현재 일부 유·아동복과 이너웨어에 집중되어 있는 친환경패션 브랜드와 디자인 제품이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겠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친환경패션의 조형적 이미지 분석에만 집중되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패션의 디자인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봄으로써 실제로 패션산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 친환경패션의 디자인요소적 현황파악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한 대상으로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패션에서 자연주의와 에콜로지 트렌드가 유행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로부터 2009년 2월 검색시점까지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자료는 학술논문 전문검색사이트인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nks)과 KISS(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를 중심으로 수집하였으며, 검색에 사용한 키워드는 친환경패션의 개념에 대해 고찰한 용어들을 중심으로 'Naturalism fashion', 'Green fashion', 'Environmental-friendly fashion', 'Eco fashion', 'Sustainable fashion', 'Well-being fashion', 'Lohas fashion'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키워드가 연구의 제목으로 사용되었으며 친환경패션의 디자인요소에 대해 다룬 연구는 총 국내연구 22편이었다. 분석방법으로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친환경패션의 선, 색채, 소재를 표현하는 단어 또는 단어 구들을 알아봄으로써 친환경패션의 디자인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표현한 단어는 영문 또는 국문으로 사용된 언어 그대로 이용하였다.

II. 친환경패션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친환경패션의 개념

친환경의 개념은 자연주의(Naturalism)로부터 시작되어 그린(Green), 환경친화(Environment-friendly), 에코(Eco, Ecology), 지속가능한(Sustainable), 그리고 웰빙(Well-being)과 로하스(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트렌드까지 이어진다고 정의할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자각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리스 사람들은 자연의 질서와 조화에서 보이는 비례의미를 강조하였으며, 모방을 통해 자

연의 본질을 표현하였다(Houser, 1999). 근대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소의 주장과 함께, 인간의 자연적 감정에서 발생하는 순수한 것에서 생의 목적과 즐거움을 누리려 했기 때문에 장식된 화려함보다 자연적 모습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한편 1960년대의 히피 문화는 자연으로의 회귀와 더불어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웠으며,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운동으로 확산되었다(김희연, 2006). 이러한 '자연주의'가 현대에 와서는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에콜로지에 의해 강화된 하나의 경향으로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Barnard, 2002).

1970년대 초의 석유 파동으로 인하여 세계의 천연 자원이 고갈되기까지 얼마나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그린' 개념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가 타제품보다 자원절약과 공해의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생산과 유통, 사용, 폐기의 3단계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들어진 디자인(Hopfenbeck, 1993)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린 디자인의 개념은 1980년대의 환경파괴에 대한 각성으로 인하여 공동 운명체의 지구촌이라는 자각을 일으켰으며, 1990년대에는 '환경친화'와 '에코'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전종찬, 2004).

현재 미국에서 '환경친화'와 '에콜로지(에코)'의 표현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태학적 문제가 인류생존의 당면문제로 심각하게 인식되며 환경의 개념이 재해석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한소원, 김영인, 1999). 환경친화란 생태계의 순환과정에 순응하도록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김문숙, 최나영, 1998)을 말하며, 에코란 사회와 생태학적 균형을 위해, 환경의 보존과 개선,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 전체의 공동선 지향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추구(권영걸, 2001)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 사회, 환경 등 분야에서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절제된 상태의 개발(Fuad-Luke, 2002)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가능한'의 개념은 21세기 미래를 향한 하나의 친환경디자인 방법론으로 등장(맥도우, 브라운가르트, 2002/2002)하였고, '에코'의 개념보다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고려와 함께 윤리적인 제품의 수명주기 양상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었다(Charter & Tischner, 2001). 다시 말하면,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란 우리가 누리고 있

는 현재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현재와 다음 세대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물려줄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이연희 외, 2007).

2000년대로 오면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은 현대의 대표적인 문화 트렌드인 ‘웰빙’과 접목되면서, 환경을 중시하는 자연친화적인 자연주의의 개념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중요시하는 인간친화의 개념으로 변화되었다(한소원, 김영인, 1999). 웰빙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복지, 안녕, 행복이며, 질적인 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물질적 필요를 비롯하여 자유, 건강, 개인적 안정성의 경험, 그리고 좋은 사회적 관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Assessment Board, 2003). 또한 웰빙이란 경제적으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고 문화적인 삶으로 이해해야 한다(유현정, 2006). 이러한 웰빙의 개인적 관심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로하스’이며, 로하스라는 용어는 2000년 미국의 내추럴 마케팅협회(NMI; Natural Marketing Institute)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로하스 소비자란 지속가능한 농업기법, 재활용과 재사용될 수 있는 원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품을 선호하며, 환경에 대한 배려와 함께 환경보호에 대한 실천의지를 갖고,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친환경 관련 용어들의 개념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렇듯 친환경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으나, 그 중심에 흐르는 공

통적인 핵심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존중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용어들을 ‘친환경(Environment-friendly)’으로 통칭하고자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친환경패션이란 같은 용도의 일반 패션제품에 비해 인간의 건강과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고, 환경의 순환성을 고려하며,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적 문화와 발전을 고려하는 패션디자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고,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자연친화적(natural-friendly) 가치, 건강을 중시함으로 인하여 등장한 스포티브 문화와 함께 다중적인 감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기능적(functional) 가치, 환경의 순환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가치, 세계화와 지역적 문화의 정체성과 발전을 고려하는 다문화적(multicultural)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2. 친환경패션의 시대적 변천

친환경패션으로서 자연주의 패션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자연주의 패션은 자연의 질서와 조화로부터 비례의 미를 추구하였으며,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 실루엣으로서 인간의 신체를 존중하며, 자연을 숭배하던 당시의 정신을 표현하였다(정홍숙, 1997). 이러한 자연주의 패션은 19세기 초 신고전주의 시대의 엠파이어 스타일과 20세기 초에 등장한 폴 푸와레(Paul Poiret)의 엠파이어 튜닉스타일로 변화하였다. 이 시대의 스타일은 인공적이지 않은 훌쭉한 수직선이었

<표 1> 친환경의 개념

친환경용어	개 념
자연주의 (Naturalism)	인간의 신체를 존중하며 자연을 숭배하던 고대 그리스 시대의 정신을 표현. 20세기에서는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태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부터 인간성 회복과 함께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더욱 가중시킴.
그 린 (Green)	자원의 절약과 공해의 감소에 기여하는 환경적 가치를 강조하며, 그린 공정에 의한 디자인 프로세스의 개념이 등장하고,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이 시작됨.
환경친화 (Environment-friendly)	에너지와 자원을 적게 사용하고, 자연생태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자연과 조화된 디자인을 함으로써 환경적 가치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함.
에 코 (Eco)	생태학적 문제가 인류생존의 당면과제로 심각하게 인식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환경친화 용어와 함께 사용됨. 윤리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기 시작함.
지속가능한 (Sustainable)	앞선 개념들보다 더욱 환경적,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 디자인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제품의 수명주기 양상을 종합적으로 표현함.
웰 빙 (Well-being)	기초적인 물질적 필요를 비롯하여 자유, 건강, 개인적 안정성의 경험, 좋은 사회적 관계 등을 포함한 개인의 복지, 안녕, 행복에 대한 가치가 강조됨.
로하스 (LOHAS)	지구와 환경을 해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소비생활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더 나아가 후손들까지 고려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개념으로 발전함.

으며, 얇은 직물을 사용하였고, 인체의 자연스럽고 해방된 형태를 존중한 패션이었다. 따르는 나체를 그대로 드러내거나 단순한 복식 형태나 가공되지 않은 천연 재료의 사용, 투박하고 거칠은 재질에서 자연적 가치가 표현(이경아, 전해정, 1998)되기도 하였다. 또한 20세기 초의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은 영감의 원천을 자연에서 찾음으로써, 유기적 생명체들의 구조에 근거하여 자연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포착하려고 하였고, 오리엔탈풍의 장식과 패턴으로 에스닉한 요소를 내포하였다. 이러한 자연주의 패션은 20세기의 현대로 오면서, 자연회귀의 히피 룩, 전원적인 페전트 룩, 이국적이고 민속적 양식의 에스닉 룩, 그리고 최근 빈티지 룩의 영향을 받은 네오 히피 룩 등으로 그 흐름이 이어져왔으며, 특히 1990년대 말의 퓨전적 경향은 다문화적 가치에 의해 여러 이국적인 요소가 혼합된 스타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에스닉한 요소들은 자연주의 패션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2000년대에는 오가닉 트렌드가 부상하였고, 인간 본성에 바탕을 둔 테크놀로지에 의한 자연소재의 개발이 가속화되었으며, 수공예를 통한 자연의 재해석, 자연적인 형태와 질감의 소박한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김희연, 김영인, 2006).

환경친화적 패션은, 1960년대의 자수나 손뜨개 등 수작업이 부활된 히피 룩, 1970년대에는 핑크 룩과 레이어드 룩, 그렌지 룩, 1980년대에는 에콜로지 트렌드의 영향으로 천연섬유와 천연염료의 선호, 소박함과 편안한 착용감, 1990년대의 레이어드 룩과 빈티지 룩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수명의 연장이라는 지속가능한 가치가 양면검용 옷,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클래식 스타일, 단순한 실루엣, 한 벌의 옷으로 여러 벌의 효과를 내는 다기능 의류와 모듈러 스타일의 디자인 특성을 갖는 레이어드 룩, 뉴 히피 룩과 고쳐 입기, 패치워크, 매쉬 기법, 울풀기 및 프린지 스타일, 블랭킷 스티치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 핸드메이드 기법, 니트의류의 재사용 등으로 표현되어졌다(김문숙, 최나영, 1998).

한편 에코 패션에 대해 살펴보면, 1990년대의 에콜로지 패션 트렌드가 2000년대로 오면서 에코 패션으로 발전되었고(한소원, 김영인, 1999; 허혜진, 김영인, 2007), 이러한 에코 패션의 조형적 특성은 내추럴리즘과 미니멀리즘으로 표현될 수 있다(Suh & Kim, 2005). 에코 패션은 인체를 드러내거나 강조하지 않아 몸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선이 강조된 실루엣과 단순한 형태의 실루엣(허혜진, 김영인, 2007)을 의미하며, 자연

에 대한 향수와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패션의 경향으로서 몸 전체를 자연스럽게 흐르는 여유 있는 스타일과 자연색의 사용, 천연소재가 특징이다(최해주, 이해순, 2007; 허혜진, 김영인, 2007).

2000년을 전후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패션은 미니멀한 형태를 특징으로 하며, 자연주의 패션의 내추럴하고 트레이퍼리된 스타일보다는 좀 더 단순하고 모던한 실루엣으로 나타났다(신혜순, 2003). 또한 지속가능한 패션은 절제된 재단과 구성선이 약화된 형태를 통하여,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는 지속가능한 가치가 반영된 스타일이다. 이와 더불어 하나의 패션이 여러 가지 용도로 변형됨으로써 자원절약과 폐기물의 감소효과를 줄 수 있는 트랜스포머블한 스타일적 특성은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고 복합적인(이연희 외, 2007) 실용성을 지니고 있는 기능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다.

최근의 웰빙 트렌드에서는 모듈화 디자인(modular design)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모듈화 디자인이란, 항상 움직이며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패션은 제 2의 피부로서, 인체를 가장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조합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해갈 수 있도록 의도된 패션을 말한다. 즉 기본 아이템을 착용자의 필요에 따라 코디네이트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다양한 착장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퍼와 스냅을 이용한 디테일의 탈부착으로 한 가지 아이템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의복과 시간의 절약 및 관리의 편리함을 추구(김지연, 2007)하는 기능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한 벌의 옷이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변형되며, 원형으로 회복되기도 하는 패션은, 자원절약과 폐기물의 감소효과를 줄 수 있는 21세기 친환경패션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트랜스포머블(transformable) 패션으로 정의되었다(나영원, 2003). 이러한 트랜스포머블한 특성은 로하스 패션에서 디테일의 위치 변경이나 하나의 옷으로 여러 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기능 의복, 양면검용 형태, 소매나 칼라를 떼거나 붙여서 입거나 또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스타일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지속가능한 가치가 반영된 디자인이다(박수민, 유영선, 2008).

웰빙 패션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트레이닝복과 캐포츠 룩(caports look)이다. 캐포츠 룩이란 웰빙 트렌드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패션의 형태(김지연, 2007)로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반영으로부터 스

포츨클럽과 등산, 조깅 등의 여가생활이 붐을 이루면서 10-20대의 젊은 층에 의해 나타났다(김상일, 2004). 또한 헬스와 요가활동에 착용하는 피트니스웨어와 테니스나 요트, 플로, 승마 등의 리조트의 여가생활을 연상시키는 클럽 스포츠웨어 또는 캐주얼 이지웨어, 등산복으로 대표되는 아웃도어 등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최해주, 이해순, 2007). 이러한 현상은 로하스 패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스포티브 스타일은 스포츠웨어의 디테일이나 오리엔탈 모티브를 일상복에 도입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체의 건강함과 더불어 정신적인 여유로움을 유지하려는 현대인들이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며(박수민, 유영선, 2008), 편안함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기능적 가치가 반영된 스타일이다.

따라서 친환경패션은 인간의 신체와 자연을 조화시킴으로써 인간 본연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내추럴 스타일과, 유행과 관계없이 제품의 수명이 지속될 수 있는 심플하고 절제된 디자인의 미니멀 스타일,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다기능성과 다변성을 실현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자원의 사용을 감소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블 스타일,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정신적인 여유로움과 안락함에 대한 선호가 스포츠, 요가, 명상과 같은 활동에 대한 선호로 인해 나타난 스포티브 스타일 등 <그림 1>과 같이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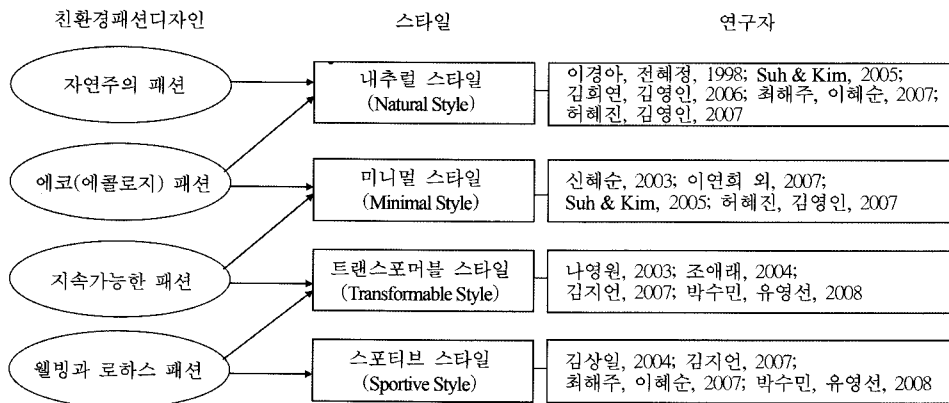
3. 친환경패션의 디자인요소

친환경패션의 디자인요소는 메리안 데이비스(Davis, 1996)와 이은영(2003)의 일반패션의 디자인요소에 대

한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친환경패션의 선은 스타일과 스타일의 내부선으로 분류하였다. 스타일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며, 이름 붙여진 구조적인 선의 재단(cut)을 의미하며, 어떠한 시기나 순간에 지배적인 패션을 설명할 때에 사용되어진 용어이다(Davis, 1996). 친환경패션의 스타일은 앞에서 선행연구를 분석한 대로, 내추럴 스타일, 미니멀 스타일, 트랜스포머블 스타일, 스포티브 스타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스타일의 내부선은 다시 세부형태선, 구성선, 장식선으로 분류하였다. 세부형태선이란 넥라인, 칼라, 바디스, 소매, 스커트, 팬츠 등 의복의 각 부분적인 형태를 의미하며, 구성선이란 옆선, 진동선, 다트, 트임, 끝단, 이음선 등을 의미하고, 장식선은 브레이드, 레이스, 러플, 단추 등 트리밍이나 코사지, 목걸이, 벨트 등 악세서리 장식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선을 의미한다.

친환경패션의 색채는 색상과 색조로 분류하였다. 색조는 다시 명도와 채도를 합한 톤(tone)의 개념과 무채색으로 분류하였다. Shigenobu(1990)의 컬러 이미지 스케일(Color Image Scale)의 분류를 기준으로, 색상에는 먼셀 시스템(Munsell System)을 사용하였고, 톤은 PCCS 체계를 기준으로 한 12단계의 톤과 무채색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친환경패션의 색채를 설명하는 용어로는 에크루(ecru) 컬러, 어스(earth) 컬러, 내추럴(natural) 컬러, 뉴트럴(neutral) 컬러 등의 표현이 발견되었다. 페이지와 얇은 갈색 또는 섬유 표백되지 않은 상태(Wikipedia)를 의미하는 에크루 컬러와, 대지나 흙, 바위, 모래를 연상시키는 색으로서 브라운 계열의 색상이 중심(박영선, 2007)이 되는 어스 컬러는 YR로 해석하였다. 식물염료로 염색된 천연의 색



<그림 1> 친환경패션의 스타일

이나 표백되지 않은 색으로서, 하늘, 바다, 수목, 대지, 물 등의 색조를 의미(김희연, 김영인, 2006)하는 내추럴 컬러는 하나의 색상명으로 지칭할 수 없으므로 소프트 톤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난색에도 한색에도 속하지 않는 색으로서, 때로는 색상이 제외된 무채색을 의미(패션사전, 1991)하는 뉴트럴 컬러는 화이트, 크림 화이트, 내추럴 베이지, 스킨 베이지 등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색이 주로 사용되므로(전소영, 1995), 화이트를 포함한 에크루 계열로 해석하였다.

친환경패션을 위한 섬유란, 최나영, 김문숙(1998)에 의하면 단순히 천연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섬유의 생산에서부터 폐기되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제품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한편 최근의 섬유에 대한 연구에서는 친환경 소재로서 천연섬유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수확하여 그린 공정으로 만들어지고, 다시 썩어져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원순환형 섬유소재까지 포함시켜 정의하였다. 조동환(2009)의 연구에서는 천연섬유란 재활용이 가능하고, 사용 후 소각 시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대량의 천연섬유를 경작하는 과정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한 이산화탄소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므로 당연히 친환경소재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오한진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는 자연 상태에서는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서 이들을 매립 또는 소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가 커다란 문제점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로써 단백질 자원을 친환경패션의 생분해성 소재로 소개하였다. 단백질은 인체피부와 같은 성분으로 피부와의 친화성이 기대되어 섬유소재로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으며, 실제로 상품화되고 있는 종류로는 카제인(우유) 섬유, 땅콩 섬유, 옥수수 섬유, 콩 섬유 등이 있다. 이러한 단백질 자원을 이용한 섬유는 약하기 때문에 다른 합성 고분자와 혼합하여 강도를 증진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미래에 보다 효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친환경패션의 섬유의 종류를 면, 마, 울, 실크와 같은 전통적인 천연섬유(traditional natural fibers)와 자연으로 순환되는 친환경섬유(environment-friendly fibers)로 분류하고, 친환경섬유는 다시 콩, 옥수수, 우유 등 자연의 단백질로부터 개발된 재생 단백질섬유와 대나무 섬유를 비롯하여 텐셀, 씨셀 등 천연펄프로부터 추출하여 친환경공정에 의해 생산된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로 구분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자연주의 패션에 관한 이경아, 전혜정(1998), 김희연, 김영인(2006), 이지은 외(2008)의 연구, 그린 패션에 최나영, 김문숙(2000)의 연구, 환경친화적 패션에 관한 김문숙(1997), 김문숙, 최나영(1998), 최나영, 김문숙(1998), 이수철, 정재연(2003), 장남경 외(2007)의 연구, 에콜로지(에코) 패션에 관한 정연자(1996), 한소원, 김영인(1999), Suh & Kim(2005), 허혜진, 김영인(2007)의 연구, 지속가능한 패션에 관한 이연희 외(2004), 김수현 외(2007), 이연희 외(2007)의 연구, 웰빙 패션에 관한 송석정 외(2005), 김지연(2007), 최해주, 이해순(2007), 그리고 로하스 패션에 관한 박옥미(2005), 엄경희, 정인희(2006), 박수민, 유영선(2008)의 연구 등 1990년대 연구 7편과 2000년대 연구 15편의 총 22편이었다.

1. 친환경패션의 스타일과 내부선

친환경패션의 스타일은 앞서 친환경패션의 시대적 변천에서 분류된 4가지의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내추럴 스타일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며, 인체의 왜곡이나 과장이 없이, 신체를 구속하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며, 여유 있고 풍성한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나라의 민속풍의 에스닉 룩이 혼재되거나 히피, 빈티지 룩 등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레이어드 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체에 여유 있고 편안하게 드레이프 되는 전통적인 내추럴 스타일은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자연친화적인 가치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에스닉, 히피, 그런지 등의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적으로 레이어드되는 내추럴 스타일은 다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에스닉, 히피, 그런지 등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적으로 레이어드 되는 내추럴 스타일이 2000년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다문화적 가치가 강조됨에 따라 증가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연친화 가치가 반영되어 나타난 스타일의 내부선에 있어서는 자연물을 옷의 일부분으로 형태화하거나 긴 박스 터틀넥 등 드레이프나 셔링을 이용한 디테일과 정리되지 않은 시접, 자연물을 그대로 장식하거나 꽃을 이용한 코사지, 조개껍질이나 나무열매를 이용한 단추, 목걸이, 벨트 등 악세서리를 이용한 장식선이 있다. 한편 다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내부선으로

는 동양복식의 형태와 여밈 전개형 형식, 랩오버 디자인, 디테일의 전통문화가 느껴지는 수공예적 장식, 에스닉 풍의 화려한 비즈 목걸이나 벨트 등이 있다.

미니멀 스타일은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으로 시대적 흐름을 타지 않으며, 유행에 민감하지 않는 베이직 스타일과 레트로, 클래식 스타일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니멀 스타일은 재료와 에너지의 절감이라는 자원의 측면과 제품수명의 연장이라는 시간의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가치가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가 반영된 스타일의 내부선으로는 여백미가 강조

되고, 깨끗하고 직선적이고 절제된 재단이 있다.

트랜스포머블 스타일은 리버서블 형태의 양면접용 옷이나 옷의 길이나 폭을 조절하거나 디테일의 변형이 가능한 모듈러 스타일, 칼라나 소매 등 디테일의 탈부착이 가능한 디테처블 스타일, 테크놀로지가 결합되어 복합적 기능성을 가진 멀티 룩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트랜스포머블 스타일은 다기능과 다변형에 대한 기능적 측면에서의 가치와 자원절약 및 폐기물 감소에 따른 지속가능한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퍼, 벨크로, 자석 여밈 장치 등의 디

<표 2> 친환경패션의 스타일과 내부선

스타일	표현된 내용	연구자
내추럴 스타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인간친화적인, 신체를 구속하지않는, 인체의 왜곡이나 과장이 없는 소박한, 이지, natural, relaxed	김문숙, 최나영, 1998; 이경아, 전해정, 1998; 한소원, 김영인, 1999; 이수철, 정재연, 2003; Suh & Kim, 2005; 김희연, 김영인, 2006; 엄경희, 정인희, 2006; 이연희 외, 2007; 최해주, 이해순, 2007; 허혜진, 김영인, 2007; 박수민, 유영선, 2008; 이지은 외, 2008
	소프트한, 부드럽게 흐르는	이경아, 전해정, 1998; 최해주, 이해순, 2007
	여유 있고, 풍성한, 루즈한	김지연, 2007; 최해주, 이해순, 2007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레어드 룩 옛 스타일을 현대적 요소와 결합한	한소원, 김영인, 1999; 김지연, 2007
	여러나라 민속풍이 혼재된, 에스닉	김희연, 김영인, 2006; 이연희 외, 2007; 이지은 외, 2008
	히피, 보헤미안 gypsy, peasant look	김희연, 김영인, 2006; 이연희 외, 2007; 이지은 외, 2008
	빈티지, 그런지 룩, 리스타일링, 리더디자인 룩	한소원, 김영인, 1999; 박수민, 유영선, 2008; 이지은 외, 2008
	에콜로지, 프리미티브	이지은 외, 2008
미니멀 스타일	아프리카 지역의 때 묻지 않은 원시성, 노출이 심하고 단순한	정연자, 1996; 한소원, 김영인, 1999; 이지은 외, 2008
	단순한 실루엣, 여백미를 강조	김문숙, 최나영, 1998; 이연희 외, 2007; 박수민, 유영선, 2008
	미니멀리즘, 단아하고 절제된	Suh & Kim, 2005; 김지연, 2007
	직선적인	이경아, 전해정, 1998; 박수민, 유영선, 2008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베이직한 시대적 흐름을 타지 않는, 실루엣은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김문숙, 최나영, 1998; 이연희 외, 2007; 최해주, 이해순, 2007
트랜스포머블 스타일	레트로, 클래식, 고전적 스타일	김희연, 김영인, 2006; 최해주, 이해순, 2007; 이연희 외, 2007; 이지은 외, 2008
	멀티 룩, 복합적 기능성을 지니는, 테크놀로지를 결합시킨	김문숙, 최나영, 1998; 이연희 외, 2004; 박수민, 유영선, 2008
	양면접용 옷, 리버서블 형태	김문숙, 최나영, 1998; 이연희 외, 2004; 박수민, 유영선, 2008
	모듈러 스타일, 변형이 가능한, 옷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디테일의 위치변경, A-POC making	김문숙, 1997; 김문숙, 최나영, 1998; 이연희 외, 2007; 박수민, 유영선, 2008
스포티브 스타일	칼라나 소매를 탈부착이 가능한, 탈착개념의 디테처블 효과	이연희 외, 2007; 박수민, 유영선, 2008
	스포츠 룩, 캐포즈 룩, 스포츠웨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스타일	김지연, 2007; 이연희 외, 2007; 최해주, 이해순, 2007; 박수민, 유영선, 2008
	트레이닝 수트, 트레이닝 룩, 웰니스 룩, 요가, 헬스, 댄스, 등산복, 인체에 밀착되는 외관	송석정 외, 2005; 김지연, 2007; 최해주, 이해순, 2007; 박수민, 유영선, 2008

<표 2> 계 속

내부선	표현된 내용	연구자
세부 형태선	자연물을 옷의 일부분으로 형태화	정연자, 1996
	긴 박스 터틀넥 등 드레이프나 셔링을 이용한 디테일	최해주, 이혜순, 2007; 박수민, 유영선, 2008
	동양복식의 형태미	이지은 외, 2008
	단순한 형태	허혜진, 김영인, 2007
	지퍼, 벨크로, 자석 여밈	김지연, 2007; 최해주, 이혜순, 2007
구성선	후드, 드로우 스트링, 코드 락 당김 끈, 허리 부분의 끈조임, 레깅스 팬츠, 무릎길이 크롭 팬츠, 스니커즈	김지연, 2007; 최해주, 이혜순, 2007
	깨끗하고 질제되며 구조선이 약화된 선	이연희 외, 2007
	여밈 전개형 형식, 랩오버 디자인	김지연, 2007
장식선	정리되지 않은 시접	한소원, 김영인, 1999
	소매 끝 고무단 트리밍, 파이핑 라인, 조강복 옆줄 장식	최해주, 이혜순, 2007
	디테일의 수공예적 표현	이연희 외, 2007
	조개껍질이나 나무열매를 이용한 단추	한소원, 김영인, 1999
	자연물을 그대로 장식	정연자, 1996
	꽃 모양의 코사지, 깃털 장식, 원석 크리스탈 목걸이, 조가비, 나무구슬, 씨앗으로 만든 목걸이 또는 벨트, 일본풍의 벨트, 화려한 비즈 장식의 벨트	최해주, 이혜순, 2007

테일은 친환경패션에서 기능적 가치가 반영된 다기능과 다변형적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스포츠브 스타일은 친환경패션의 네 가지 유형 중 유일하게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연구에서 새롭게 나타났으며, 캐포츠 룩이나 스포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스타일, 트레이닝 룩과 같은 인체에 밀착되고 신축성이 있는 외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포티브 스타일은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운동과 여가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활동성을 위한 기능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부선이나 형태로는 후드, 드로우 스트링, 코드 락 당김 끈, 허리 부분의 끈조임, 레깅스 팬츠, 무릎길이 크롭 팬츠, 스니커즈 등과 소매 끝 고무단 트리밍, 파이핑 라인, 조강복 옆줄 장식선 등이 있다.

이상의 친환경패션에 나타난 스타일과 내부선에 대해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 친환경패션의 색채

친환경패션의 색상으로는 먼셀 색상명인 YR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orange', '가공되지 않은 색', '아이보리', '베이지', '스킨 베이지', '에크루 계열', '뉴트럴 계열', '브라운색', '갈색 계열', '어스 컬러' 등의 표현을 모두 YR로 해석하였다. YR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섬유색이므로, 유행의 흐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기본적인 색상으로서 자

연친화 가치와 함께 지속가능한 가치가 반영된 색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본적인 친환경적 색상인 R, Y, G, B 외에도, 200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GY, BG, PB가 친환경패션의 색상으로 추가되었다. 이렇게 색상이 다양화된 점에는 다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친환경패션의 색조로는 툰에서는 소프트 툰이 가장 많은 연구자에 의해서 언급되었다. '파스텔 색조', '흰색이 섞인 내추럴 툰', 'whitened pastel tone' 등의 표현을 모두 소프트 툰으로 해석하였으며, 이에는 자연친화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순위로는 덜 툰, 페일 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성색조', '단조로운 색감' 등은 덜 툰으로, '퇴색한 듯한 색감', '바랜 듯한 색감' 등은 페일 툰으로 해석하였다. 이 외에도 비비드 툰, 브라이트 툰, 라이트 툰, 그레이쉬 툰, 라이트 그레이쉬 툰 등 다양한 툰이 언급되었으며, 댁 툰은 2000년 이후의 연구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로써, 툰에서도 색상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툰이 친환경패션에 적절한 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둡지 않고, 밝고 선명한 툰들이 점차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채색으로는 화이트가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언급되었으며, 그레이도 종종 나타났다. 화이트와 그레이와 같은 무채색은 어느 옷이나 코디가 자유로우며 기능적 가치와 함께 유행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의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친환경패션에 나타난 색채를 정리하면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친환경패션의 색채

색 채	표현된 내용	연구 자
색 상	R	red 김희연, 김영인, 2006; 최해주, 이해순, 2007; 이지은 외, 2008
	YR	orange, 가공되지 않은 색, 아이보리, 베이지, 스킨 베이지, 갈색 계열, 어스 컬러, 에크루 계열, 뉴트럴 계열 정연자, 1996; 김문숙, 최나영, 1998; 이경아, 전해정, 1998; 한소원, 김영인, 1999; 김희연, 김영인, 2006; 김지연, 2007; 이연희 외, 2007; 최해주, 이해순, 2007; 허혜진, 김영인, 2007; 이지은 외, 2008
	Y	yellow, lime light, 고명도 난색 계열 김희연, 김영인, 2006; 김지연, 2007; 최해주, 이해순, 2007; 이지은 외, 2008
	GY	green yellow 이지은 외, 2008
	G	green, 카키, 카키 브라운 이수철, 정재연, 2003; 김지연, 2007; 이지은 외, 2008
	BG	blue green, turquoise 이지은 외, 2008
	B	blue, 바다와 하늘 김문숙, 최나영, 1998; 이수철, 정재연, 2003; 이지은 외, 2008
	PB	lilac sachet 이지은 외, 2008
색 조	vivid bright light	원 색 김지연, 2007; 이연희 외, 2007
		밝고 선명한 색조 이연희 외, 2007; 이지은 외, 2008
		밝고 환한 느낌의 tinted color 이지은 외, 2008
	soft pale dull deep	soft tone, 파스텔 색조, 흰색이 섞인 내추럴 톤, whitened pastel tone 이경아, 전해정, 1998; 한소원, 김영인, 1999; 김희연, 김영인, 2006; 엄경희, 정인희, 2006; 김지연, 2007; 최해주, 이해순, 2007; 허혜진, 김영인, 2007; 박수민, 유영선, 2008; 이지은 외, 2008
		pale tone, 퇴색한 색감, 바랜 듯한 색감 이경아, 전해정, 1998; 이연희 외, 2007; 최해주, 이해순, 2007; 허혜진, 김영인, 2007; 이지은 외, 2008
		dull tone, 중성색조, 단조로운 색감 이경아, 전해정, 1998; 김희연, 김영인, 2006; 김지연, 2007; 이연희 외, 2007; 허혜진, 김영인, 2007; 이지은 외, 2008
		저명도 저채도의 대지색상 이경아 외, 1998
		light grayish tone 김희연, 김영인, 2006; 이지은 외, 2008
	grayish tone 김희연, 김영인, 2006	
	무채색	white white, off white, 뉴트럴 계열, 크림 화이트, 미려한 흰색, 이경아, 전해정, 1998; 한소원, 김영인, 1999; 김희연, 김영인, 2006; 김지연, 2007; 이연희 외, 2007; 최해주, 이해순, 2007; 허혜진, 김영인, 2007; 이지은 외, 2008
gray black light gray, gray grayish가 섞인 cool neutral 최해주, 이해순, 2007; 허혜진, 김영인, 2007; 이지은 외, 2008		

3. 친환경패션의 소재

친환경패션의 소재에는 섬유, 가공, 구성기법, 재질에 대해 언급되었다.

친환경패션의 섬유에는 천연섬유가 가장 많았으며,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천연섬유의 언급도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용 후에 100%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콩, 옥수수, 우유 섬유와 같은 재생 단백질 섬유나 대나무 섬유, 텐셀, 씨셀과 같은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등을 포함한 친환경섬유

가 친환경패션의 적절한 소재로 제안되었다. 이 외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니트나 페트병 등 폐생활용품, 중고의류 등이 친환경패션의 섬유로 언급되었다. 유기농 재배를 포함한 천연섬유에는 자연친화적 가치가, 친환경섬유와 재활용섬유는 환경과 자원의 순환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친환경패션의 가공에는, 섬유의 외관을 위한 가공으로서 천연염색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흡한속건, 항균방취, 온도조절, 피부미용 및 의료목적 등 인간의 쾌적함을 높이기 위한 기능성 가공이 요구되었다.

이 외에 경량화, 유연성 등 촉감개선을 위한 가공들도 언급되었다. 천연염색에는 자연친화적 가치가, 기능성 가공에는 기능적 가치가, 촉감개선 가공에는 자연친화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친환경패션의 구성기법으로는 패치워크, 손뜨개, 아플리케나 블랭킷 스티치, 엮기, 타프스트리 등 봉제과정 중의 기법과 십자수나 자수, 비즈나 핫픽스, 울풀기, 홀치기염, 트리밍, 프린트 등 봉제 후의 기법들이 언급되었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자수나 비즈, 트리밍, 프린트 등 봉제 후 기법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엮기나 울풀기, 홀치기염 등의 구성기법은 1990년대의 연구에는 언급되었으나, 2000년대 연구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의 친환경패션의 구성기법의 경향은 점차 울풀기, 홀치기 염색, 패치워크, 손뜨개 등에서 보여졌던 자연친화적 가치 이외의 지속가능, 다문화적 가치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패션의 재질은 다시 표면특성, 태특성, 빛에 대한 반사력으로 분류되었다. 표면특성은 자연의 질감 그대로, 거친, 투박한, rustic, 낡고 헤진 듯한, 기모된 등과

같은 표면마찰에 대한 표현들과 구겨지고, 불규칙하고, 꾸깃꾸깃하고, 우물투들하고, 주름 잡히고, 이랑진, 요철이 있는 크링클 소재 등과 같은 표면형태에 관한 표현들이 나타났다. 또한 따뜻함과 같은 열 특성에 관한 내용들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자연상태의 거친 질감과 불규칙한 재질감은 자연친화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태특성에 있어서는 유연성과 신축성이 많이 언급되었다. 빛반사력은 반투명감에 대한 언급과 얼룩진 느낌에 대한 표현이 나타났다. 이러한 재질에 관한 표현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연구들에서 많이 언급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친환경패션에서는 재질이 점차 중요한 디자인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신축성은 기능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고, 반투명함 또는 얼룩진 느낌은 자연친화적 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이러한 친환경패션에 나타난 소재에 대해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에서 친환경패션에 나타난 디자인요소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 친환경패션의 섬유 종류와 가공기법 및 재질

소재		표현된 내용	연구자
섬유의 종류	천연 섬유	면, 마, 울, 실크	김문숙, 최나영, 1998; 이경아, 전해정, 1998; 한소원, 김영인, 1999; 엄경희, 정인희, 2006; 이연희 외, 2007; 최해주, 이혜순, 2007; 허혜진, 김영인, 2007; 박수민, 유영선, 2008; 이지은 외, 2008
		유기농, 오가닉으로 생산된 천연섬유	김문숙, 최나영, 1998; 한소원, 김영인, 1999; 이수철, 정재연, 2003; 김수현 외, 2007; 장남경 외, 2007
	친환경 섬유	텐셀, 씨셀 등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김문숙, 최나영, 1998; 한소원, 김영인, 1999; 최해주, 이혜순, 2007
		콩, 옥수수, 우유 섬유 등 재생 단백질 섬유	이수철, 정재연, 2003; 송석정 외, 2005; 김지연, 2007
	재활용 섬유	페트병 등 폐생활용품	김문숙, 최나영, 1998; 장남경 외, 2007
		재사용이 가능한 니트, 편직물	정연자, 1996; 김문숙, 최나영, 1998; 이경아, 전해정, 1998; 한소원, 김영인, 1999; 이연희 외, 2007
가공	외형 가공	중고의류	박수민, 유영선, 2008
		천연염색, 자연염색	김문숙, 최나영, 1998; 이경아, 전해정, 1998; 한소원, 김영인, 1999; 이수철, 정재연, 2003; 엄경희, 정인희, 2006; 허혜진, 김영인, 2007; 박수민, 유영선, 2008
	촉감개선 가공	조경량화, 부드러움, 촉각을 자극하는 재질	이경아, 전해정, 1998; 송석정 외, 2005; 이지은 외, 2008
		패적성, 흡한속건, 시원한 착용감	박옥미, 2005; 송석정 외, 2005
		항균방취, 방충, 소취	이수철, 정재연, 2003; 박옥미, 2005; 송석정 외, 2005
		온도조절, 체온조절	박옥미, 2005; 송석정 외, 2005
기능성 가공	피부노화방지, 통증완화, 해독효과, 항알레르기	이수철, 정재연, 2003; 박옥미, 2005; 송석정 외, 2005	
	미백 보습, 자외선차단, 정전기, 전자파차단 등	이수철, 정재연, 2003; 박옥미, 2005; 송석정 외, 2005; 이연희 외, 2007	

<표 4> 계 속

소 재	표현된 내용	연구 자
구성 기법	봉재 과정 중 패치워크, 손뜨개, 아플리케 스티치, 위기, 타피스트리	정연자, 1996; 김문숙, 최나영, 1998; 한소원, 김영인, 1999; 김희연, 김영인, 2006; 이연희 외, 2007; 최해주, 이해순, 2007; 이지은 외, 2008
	봉재 후 자수, 비즈 또는 핫픽스, 올풀기, 홀치기염, 트리밍, 프린트	김문숙, 최나영, 1998; 한소원, 김영인, 1999; 엄경희, 정인희, 2006; 김지연, 2007; 이연희 외, 2007; 최해주, 이해순, 2007; 허혜진, 김영인, 2007; 박수민, 유영선, 2008; 이지은 외, 2008
재 질	표현된 내용	연구 자
표면특성	구겨지고, 불규칙하고, 꾸깃꾸깃하고, 우둘투둘하고	한소원, 김영인, 1999; 김지연, 2007; 허혜진, 김영인, 2007
	주름 잡히고, 이랑진, 요철이 있는	한소원, 김영인, 1999; 김지연, 2007; 허혜진, 김영인, 2007
	굽슬거리는	한소원, 김영인, 1999
	구멍 내거나 찢은	한소원, 김영인, 1999
	자연의 질감 그대로, 거친, 원시적, 투박한, rustic	정연자, 1996; 이경아, 전해정, 1998; 한소원, 김영인, 1999; 김희연, 김영인, 2006; 허혜진, 김영인, 2007; 이지은 외, 2008
	납은 듯한, 헤진 듯한, 기모된 warm	한소원, 김영인, 1999; 이지은 외, 2008 김희연, 김영인, 2006
태특성	신축성, 밀착되는, 라이크라, 스트레치성 있는, 스판덱스	정연자, 1996; 이경아, 전해정, 1998; 김지연, 2007; 최해주, 이해순, 2007; 이지은 외, 2008
	부드럽고, 유연성, tenderness	이경아, 전해정, 1998; 김희연, 김영인, 2006; 김지연, 2007; 최해주, 이해순, 2007; 이지은 외, 2008
	얇 고	이경아, 전해정, 1998; 김지연, 2007; 이지은 외, 2008
	탄력성을 지닌	박수민, 유영선, 2008
	가볍고, 영성한	이경아, 전해정, 1998; 김지연, 2007; 최해주, 이해순, 2007; 이지은 외, 2008
빛반사력	비치는, 살짝 비치는, 투명감 있는	정연자, 1996; 이경아, 전해정, 1998; 김지연, 2007; 최해주, 이해순, 2007
	일룩진 느낌의	한소원, 김영인, 1999

<표 5> 친환경패션의 디자인요소 특성

반영된 가치	디자인요소	친환경패션의 특성
자연친화적 (nature-friendly)	스타일과 내부선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며, 여유 있고 부드럽게 흐르는 풍성한 실루엣+드레이프나 셔링을 이용한 디테일, 정리되지 않은 시집, 자연물을 이용한 액세서리 장식 등
	색 채	YR 색상, 소프트 톤
	소 재	천연섬유 사용, 천연염색과 촉감개선 가공 요구, 패치워크, 손뜨개 등 봉재과정 중의 구성기법을 이용하고, 낡고, 거칠고, 주름지고, 불규칙하며, 반투명한 표면 재질감을 선호
기능적 (functional)	스타일과 내부선	지퍼, 벨크로, 자석 여밈 등을 이용하여 옷의 길이나 폭을 조절하거나, 디테일의 변형 또는 탈부착이 가능한 스타일, 멀티 룩 & 스포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스타일+양면경용 옷 & 후드, 드로우 스트링, 코드 락 당김 끈, 소매 끝 고무단 트리밍, 파이핑 라인 등
	소 재	흡한속건, 항균방취, 방전 등 기능성 가공과 신축성을 요구
지속가능 (sustainable)	스타일과 내부선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 베이직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여백미가 강조되고, 깨끗하고 직선적이며 절제된 재단
	색 채	YR 색상, 화이트를 포함한 무채색
	소 재	친환경섬유, 재활용섬유 사용
다문화적 (multi-cultural)	스타일과 내부선	에스닉, 히피, 그런지 등 다양한 스타일의 레이어드 스타일+동양복식의 형태, 여밈 전개 형 형식, 랩오버 디자인, 에스닉 풍의 화려한 비즈, 목걸이, 벨트 등의 액세서리 장식선
	색 채	다양한 색상, 밝고 선명한 톤들
	소 재	수공예 장식을 위한 자수, 비즈, 트리밍 등 봉재 후 구성기법 이용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문화와 산업 분야에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패션에서도 중요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친환경에 대해 시대와 연구자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들을 중심으로 친환경패션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친환경패션의 개념에는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연친화적 가치, 건강을 중시하며 실용성과 함께 복합적인 감성을 추구하는 기능적 가치, 환경과 자원의 순환성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가치, 세계화와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발전을 고려하는 다문화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패션에 나타난 스타일과 내부선, 색채, 소재에 대한 특성을 1990년대 이후의 학술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친환경패션에 내재하는 자연친화적 가치는, 스타일에 있어서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며 신체를 구속하지 않고 루즈한 실루엣을 가진 내추럴 스타일로 나타났다. 스타일의 내부선에 있어서는 자연물을 옷의 일부분으로 형태화하거나 드레이프나 셔팅을 이용한 디테일, 정리되지 않은 시접, 자연물을 그대로 장식하거나 꽃을 이용한 코사지, 조개껍질이나 나무열매를 이용한 단추, 목걸이, 벨트 등 약세서리를 이용한 장식선으로 표현되었다. 색상에서는 땅과 대지의 색상인 YR로 표현되었으며, 소재에 있어서는 천연섬유의 선호와 천연염색, 촉감개선 가공, 자연 질감 그대로의 거칠고 투박한, 낡고 헤진 듯한 표면, 구겨지고 불규칙하고 주름진 재질감과 함께 투명감 있는 소재로 표현되었다.

둘째, 친환경패션의 기능적 가치는, 스타일에 있어서는 지퍼, 벨크로, 자석 여밈 장치 등을 이용하여 옷의 길이 혹은 폭을 조절하거나 디테일의 변형이 가능한 스타일, 아이템끼리 서로 조합이 가능한 모듈러 스타일, 디테일의 탈부착이 가능한 스타일, 테크놀로지가 결합되어 복합적 기능을 가진 멀티 룩 등 트랜스포머블한 스타일로 나타났으며, 한편으로는 캐포츠 룩이나 스포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스타일과 인체에 밀착되는 외관을 가진 트레이닝 룩 등의 스포티브 스타일로 나타났다. 스타일의 내부선으로는 리버서블 형태의 양면견용 옷이나 후드, 드로우 스트링, 코드 락 당김 끈, 허리 부분의 끈 조임, 레깅스 팬츠, 무릎길이의 크롭 팬츠 등과 소매 끝 고무단 트리밍, 파이핑 라인, 조강복 옆줄 장식선 등으로 표현되었다. 소재에 있어서는 기능성 가공과 함께 신축성 있는 재질감을 요구하였다.

셋째, 친환경패션의 지속가능한 가치는, 스타일과 내

부선에서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으로 시대적 흐름을 타지 않으며,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미니멀 스타일과 베이직하며 클래식한 스타일, 그리고 이에 따라 깨끗하고 직선적이며 절제되고, 여백미를 강조하는 재단선으로 표현되었다. 색채에서는 베이직하면서 기본적인 색상으로서 YR과 화이트를 포함한 무채색으로 나타났다. 소재에 있어서는 100%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친환경섬유와 재활용섬유로 표현되어졌다.

넷째, 친환경패션의 다문화적 가치는 스타일과 내부선에 있어서 여러 나라의 민속풍과 히피, 빈티지 룩 등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여 레이어드되는 스타일, 동양 복식의 형태미와 여밈 전개형 형식, 랩오버 디자인, 디테일의 전통문화가 느껴지는 수공예적 장식, 에스닉풍의 화려한 비즈 목걸이나 벨트 장식 등으로 표현되어졌다. 색채에서는 다양한 색상과 밝고 선명한 톤의 요구로 나타났으며, 소재에서는 자수, 비즈, 트리밍, 프린트 등을 이용한 봉제 후 기법들로 표현되어졌다.

이상에서 친환경패션은 외형적 이미지인 스타일뿐만 아니라, 스타일의 내부선과 색채, 소재에 있어서 섬유의 종류 및 가공, 구성기법, 재질 등이 모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친환경패션에 대한 스타일과 내부선, 색채나 소재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경향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친환경패션의 디자인 요소의 각 항목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시행하여 패션 산업 현장에서 제품개발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권영걸. (2001). *공간디자인 16강*. 서울: 국제.
- 김문숙. (1997). 녹색규범과 미래 복식디자인의 방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5(1), 57-69.
- 김문숙, 최나영. (1998). 패션에 표현된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특성-1990년대 이후의 국내 디자이너 작품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6(2), 163-180.
- 김상일. (2004). 웰빙 열풍을 읽는 3개의 코드. *LG 주간경제*, p. 20.
- 김수현, 이재정, 정현숙. (2007). 오가닉 코튼을 이용한 지속 가능한 패션디자인. *복식*, 57(2), 115-131.
- 김지연. (2007). 디지털 환경의 웰빙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5(5), 796-809.
- 김희연. (2006). 패션의 창조적 원천, 자연. 김영인 (편), *룩, 패션을 보는 아홉가지 시선* (pp. 1-21). 서울: 교문사.
- 김희연, 김영인. (2006). 자연주의 복식의 시대적 변천에 따

- 른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6(7), 31-41.
- 나영원. (2003). *복식에 표현된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수민, 유영선. (2008). 2000년대 그린디자인에 나타난 로하스 패션 특성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32(2), 307-318.
- 박연선. (2007). *색채용어사전*. 서울: 도서출판 예림.
- 박옥미. (2005). 로하스 현상이 반영된 현대섬유소재의 특성.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1(3), 50-55.
- 송석성, 최영백, 김상현. (2005). 웰빙 문화와 섬유관련 상품의 동향. *고분자과학과 기술*, 16(5), 613-618.
- 신혜순. (2003). *현대패션용어사전*. 서울: 교문사.
- 엄경희, 정인희. (2006). 로하스가 패션악세서리 제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발표학연구*, 11, 244-253.
- 오한진, 이지영, 김무곤, 이기훈. (2009). 단백질 자원을 이용한 친환경소재 및 섬유개발. *섬유기술과 산업*, 13(1), 39-48.
- 맥도우, 윌리엄, 브라운가르트, 마이클. (2002). *요람에서 요람으로*. 김은령 옮김 (2002). 서울: 에코리브르.
- 유현정. (2006). 웰빙 트렌드에 대한 소비자의식 및 웰빙 행동. *한국생활과학회지*, 15(2), 261-274.
- 이경아, 전혜정. (1998). 복식의 자연주의 양식에 관한 연구 -90년대 현대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37, 253-273.
- 이수철, 정재연. (2003). 21세기 친환경섬유소재 활용 사례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9(4), 93-102.
- 이연희, 이윤미, 하승연. (2004). 빅터 파파넬의 생태학적 미학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1(3), 185-197.
- 이연희, 이현아, 박재욱.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한국의류학회지*, 31(1), 21-31.
- 이은영. (2003). *복식디자인론*. 서울: 교문사.
- 이지은, 홍인숙, 권수애. (2008). Comme des garçons 컬렉션에 표현된 현대 내추럴리즘 패션트렌드. *한국생활과학회지*, 17(4), 771-783.
- 장남경, 김윤정, 주잔나. (2007). 패션산업에서의 친환경디자인. *복식문화연구*, 15(6), 952-964.
- 전민정. (2007, 7. 27). 한두 번 입고 버리는 '스트리트 패션' 환경오염 주범. *한겨레신문*. 자료검색일 2009, 5. 4, 자료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21/225261.html>
- 전소영. (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콜로지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종찬. (2004). 제품디자인에 나타난 에코디자인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지*, 15(1), 263-271.
- 정연자. (1996). 현대패션에 표현된 에콜로지에 관한 연구. *복식*, 30, 227-237.
-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조동환. (2009). 저탄소 녹색자원: 천연섬유. *섬유기술과 산업*, 13(1), 3-12.
- 조애래. (2004). *복식디자인에 표현된 열린 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나영, 김문숙. (1998). 환경친화적 섬유제품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1), 121-135.
- 최나영, 김문숙. (2000). 그린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행위적 특성 분석. *복식*, 50(1), 145-159.
- 최해주, 이혜순. (2007). 한국 웰빙 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2), 139-154.
- 패션사전*. (1991). 서울: 디자인신문사.
- 한소원, 김영인. (1999). 1990년대 초반 복식유행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3(2), 296-306.
- 허혜진, 김영인.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콜로지 룩의 색채 특성. *한국색채학회지*, 21(1), 10-19.
- Assessment Board. (2003). *Ecosystem and human well-being*. London: Island Press.
- Barnard, M. (2002). *Fashion as communication* (2nd ed.). London: Routledge.
- Charter, M., & Tischner, U. (Eds.). (2001). *Sustainable solutions: Developing products and services for the future*. London: Greenleaf.
- Davis, M. L. (1996). *Visual design in dress* (2n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College.
- Delong, M. R. (1998). *The way we look*.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a division of ABC Media, Inc.
- Fuad-Luke, A. (2002). *The eco-design handbook*. London: Thames & Hudson.
- Ljungberg, L. Y. (2007). Materials selection and design for development of development of sustainable products. *Materials & Design*, 28, 466-479.
- Hopfenbeck, W. (1993). *The green management revolution*. New Jersey: Prentice-Hall.
- Houser, A. (1999). *The social history of art. Vol. 4* (3rd ed.). London: Routledge.
- Shigenobu, K. (1990). *Color image scale*. New York: Kodansha America, INC.
- Suh, H.-S., & Kim, M.-J. (2005). A study on eco fashion Design-Since the 1990s-. *International Costume Conference Proceeding*, 224-225.
- Sustainable Clothing II. (2007, April 10). *Samsungdesignnet*. Retrieved May 4, 2008, from <http://www.samsungdesign.net/Report/IndustryTrend/TrendView>